동물약품, 구제역 타고 호조?

농림부, 소독약 무상공급 … 돼지 수출 및 사료기업은 비상

경기도 안성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돼지 의사구제역이 진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돼지 수출기업, 사료 메이커, 동물약품 관련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돈농가에 사료를 공급해온 사료기업과 도축업소,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육가공기업 및 돼지 수출업소 등이 구제역 파동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 수출기업들은 4월 발생한 돼지 콜레라로 일본수출이 6개월 가량 연기된 데 이어 구제역으로 수출 재개시기가 더욱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롯데 햄·우유는 일본인이 선호하는 후지육과 등심육을 국내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구제역 사태로 관련사업이 일시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 돼지 도축업소들은 구제역 사태가 지속되면 도축물량이 줄어들어 큰 피해를 보게 될까 마음을 졸이고 있으며, 사료기업들도 살처분되는 돼지가 늘어나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제당은 양돈농가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사료사업본부가 전국 영업본부별로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사료공장에 대한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농가에 대한 무료 방역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육가공 및 정육점, 음식점들도 돼지고기 및 육가공제품 소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구제역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00년에도 구제역 발생 직후 육류 소비가 줄어들어 2002년에도 일시적인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동물약품 공급기업들은 구제역 예방을 위한 소독제 및 방역약품 공급으로 당한 재미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가 가축 도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시행하고 100마리 미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했던 소독약 무상 공급을 300마리 미만 농가로 확대하는 등 농가 지원을 강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돼지 구제역 파동은 2일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일단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경기 안성에 이어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확산이 우려됐으나 5월4일과 5일 2일 동안에는 구제역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추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또 5월3일 신고돼 정밀검사를 벌인 경기 광명시 가락동 축산농가의 젖소는 음성으로 판정됐고, 안성 발생농가에서 4월23일 출하된 돼지 64마리와 진천 발생농가의 인근 농장 출하분 60마리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돼지콜레라도 4일 신고된 충북 음성의 돼지콜레라 의심 돼지에 대한 검사와 철원 발생농가 출하 돼지 20t에 대한 정밀검사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기관급 이상 전 간부를 질병 발생지역 및 관리지역, 가축사육 밀집지역 등 전국 28개 취약지역에 보내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들에 대한 방역활동 독려에 나섰다.

구제역 발생현장에서는 경기 안성의 3개 농가 돼지 등 1만741마리와 충북 진천 3개 농가 1351마리 등 구제역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 가축 1만2000여마리에 대한 도살처분과 매몰작업이 모두 완료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06>